



광주 아파트 매입 큰손 '30대'

1~3월 광주 아파트 매입 30대 1022건...40대 985건 첫 추월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영향...북구→광산구→서구 순 매입 많아

올 1분기 광주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는 30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입 비중에서 30대가 40대를 추월한 건 처음으로, 30대의 아파트 매입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뷰어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광주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3895건으로 집계됐다.

매입자 연령대로 살펴보면 30대가 1022건(26.2%)으로 40대(985건·25%)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50대 827건(21.2%), 60대 523건(13.4%), 70대 246건(6.3%), 20대 220건(5.6%) 순이었다.

40대는 줄곧 광주지역 연령별 아파트 매입건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전분기인 2023년 4분기, 40대 매입건수는 898건으로 30대(831건) 보다 57건 많았다.

작년 1분기에도 40대 1036건, 30대 912건, 2022년 1분기 역시 40대가 1242건으로 30대(1029건)를 앞섰다.

연중으로 살펴봐도 2022년 30대 3240건, 40대 3584건이었고, 2023년 30대 3969건, 40대 3140건이었다.

올 1분기 30대가 40대를 앞지르면서 연중 매입건수에서도 30대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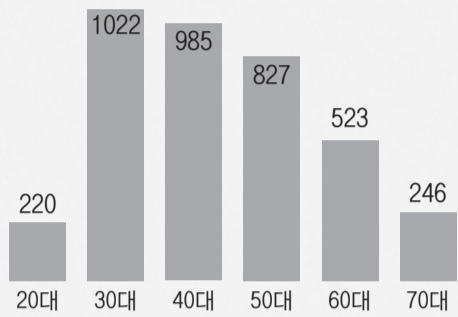
30대와 40대 역전 현상은 올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4%)보다 낮은 연 1~3%대의 낮은 금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무엇보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아파트 매입을 주저했던 30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의 아파트매입건수는 1월 1157건, 2월 1263건, 3월 1475건으로 월을 거듭할 수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만 보더라도 1월 305건, 2월 322건, 3월 295건으

■ 1분기 광주 아파트 매입 비중 (단위:건)



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30대가 매입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북구였다.

북구는 330세대로 30대가 가장 많이 매입한 자치구였고, 이어 광산구 319건, 서구 165건, 동구 107건, 남구 106건 순이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 금리는 웬만한 맞벌이 부부도 버거운 수준으로 쉽사리 수 억원을 대출받기란 무리인 상황이지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부담을 덜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우대금리로 이윤을 더욱 낮춰주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30대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면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개최된 '나비페스타' 전경.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에코플리마켓 '나비 페스타' 성료

아름다운가게와 수익금 전액 취약계층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1일 (재)아름다운가게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에서 '나비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박만 노동조합위원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장운경 (재)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및 광주은행 임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나비(나눔+비움)페스타'는 광주은행이 '나눔을 위한 비움 실천'이라는 뜻을 담아 새롭게 시작한 ESG캠페인 활동으로,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수도권에 있는 광주은행 임직원 1700여명은 지난 한 달동안 의류, 가전, 도서 등 재사용 가능한 물품 5000여 점을 기부하는 등 자원재순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고병일 광주은행장의 애장품을 비롯해 광주은행 스포츠단인 '텐텐양궁단' 소속 최미선 선수와 안산 선수의 연습용 활과 사인이 담긴 액자, 비츠로 배드민턴단의 에이스이자 국가대표인 조송현 선수

의 배드민턴 라켓 등 가치 있는 물품들이 기증돼 광주은행 에코플리마켓 '나비페스타'를 통해 방문객에게 판매되기도 했다.

물품 판매 외에도 양궁 금메달리스트 최미선 선수와 안산 선수의 팬 사인회를 열어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양궁과 배드민턴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광주은행은 광주·전남지역 보육시설 19곳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관 20곳의 어린이 400여명을 초대하고, 사전에 준비한 소비쿠폰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와 나눔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 수익금은 (재)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다자녀 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한 뜻으로 물품 기부에 나서 자원재순환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비트코인 열풍에 가상자산 시총 43조6000억원...53% 늘어

일평균 거래금액 3조6000억 거래규모·시총·이익 모두 증가

작년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3조6000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보다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22개 거래소와 7개 지급·보관업자를 조사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회복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같은 해 상반기 대비 거래규

모, 시가총액, 영업이익, 원화예치금이 모두 증가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6월 말 3만477달러에서 12월 말 4만2265달러로 39% 상승한 바 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24% 늘었고, 원화 예치금은 4조9000억원으로 21% 늘었다.

일평균 거래 중 원화마켓 거래가 3조58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4% 증가했으나, 코인마켓 거래는 41억원으로 44% 감소했다.

거래소의 영업이익은 2693억원으로 18% 늘었다. 원화마켓의 영업이익은 2968억원이었고, 코인마켓은 27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규 상장은 총 159건으로 상반기와 동일했고, 거래중단은 138건으로 20% 증가했다. 전체 가상

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상반기 대비 3.5% 줄었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은 61.5%로 상반기(62.4%)와 비슷하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하락세를 기록했던 거래 이용자는 6.4% 증가해 645만명을 기록했다.

이용자 연령별로는 지난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30대(29.3%), 40대(28.9%), 20대 이하(18.2%), 50대(17.7%), 60대(5.9%) 순대로 이용자 규모가 컸다.

대다수 이용자(416만명, 65%)는 5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10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자 비중은 10%(67만명)로 6월말 대비 2%p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아파트가격 '하락' 지속

올해 광주 0.51%·전남 0.43%↓

광주와 전남 아파트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2주(5월 13일기준) 광주의 아파트매매가격은 전(前)주 대비 0.04% 전남은 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주 연속, 전남은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로써 광주는 올해 누적 -0.51%, 전남은 -0.43%로 전국 평균(-0.75%) 보다는 양호했다.

광주는 서구가 -0.11%로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였고, 남구(-0.07%)와 북구(-0.03%)도 감소했

다. 반면 광산구는 보험세를 보였고, 동구는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광주는 보험, 전남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주 감소소에 보험으로 전환, 전남은 하락에서 증가로 바뀌었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서울(0.03%)은 상승했으나 수도권은 보험(0.00%)을 유지했고,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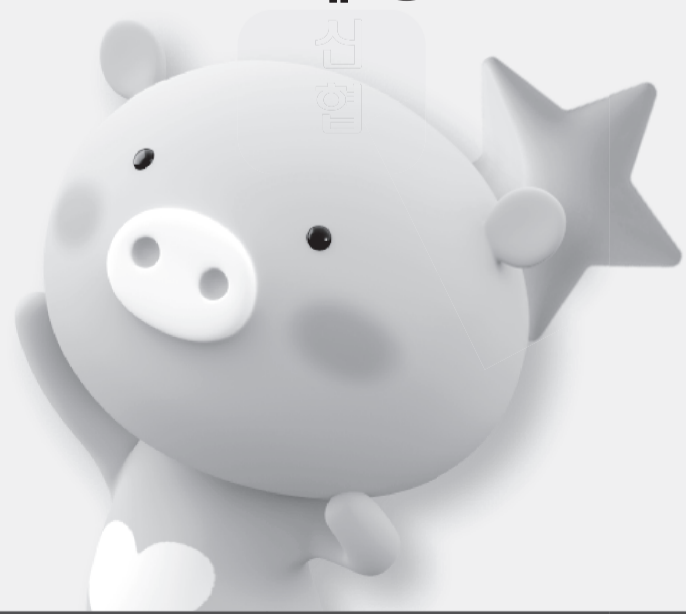
반면, 서울의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